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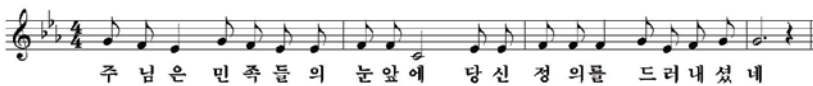


2020년 학생 견진성사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시편 98(97),1,2-3ㄱ-3ㄴ,3ㄷㄹ-4,5-6
(◎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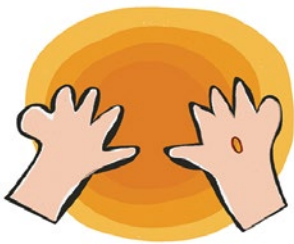
그때에 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전교의 달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분부에 따라, 신자들의 선교 의식을 높이고자 1926
 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내고 있다.
 이날의 특별 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쓴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교회는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일깨워
 주고자 1970년부터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다.

복음 묵상



함께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합니다.

계다가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복음 묵상

이민족의 사도인 바오로는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2코린 2,15). 전교는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 낸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향기가 난다는 것은 외적인 매력을 지닌 것과는 다릅니다.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추어도, 온갖 능력을 소유하여도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는 그 사람의 됴됨이에서 피어오릅니다. 또 향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령 장미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막중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소 확고하지 않아도 복음 선포의 임무를 그들이 잘 해내리라고 그분께서는 믿으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하심으로써 그들이 당신의 향기를 피워 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수의 인위적인 향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좇아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한재호 루카신부)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0년 전교 주일(10월 18일) 담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2019년 10월 특별 전교의 달을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특별 전교의 달을 계기로,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주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수많은 공동체들이 선교적 회심을 복돋을 수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초래한 고통과 도전이 올 한 해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에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의 빛이 온 교회의 선교 여정을 비추어 줍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이사 6,8) 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한 늘 새로운 응답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건네시는 이 초대는 지금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빠진 교회와 인류에게 도전 과제가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기치 못한 거센 돌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며, 모두 연약하고 길 잃은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이때에 우리는 모두 함께 배를 저어 나가도록 부름받았으며 서로 위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배에 … … 우리 모두가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마르 4,38) 하고 겁에 질려 한목소리로 외친 바로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함께할 때라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성 베드로 광장에서의 묵상,

2020.3.27.). 우리는 참으로 겁먹고 길 잃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삶을 그리고 악에서의 해방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로의 부르심, 곧 자신을 벗어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초대는 그 자체로 나눔, 봉사, 전구 기도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시는 사명은 두려워하며 감혀 있는 나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면서 재발견되고 쇠신된 나로 옮겨 가게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요한 19,28-30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임을 보여 주십니다(요한 19,26-27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각자 기꺼이 파견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선교 활동에 나서는 사랑, 생명을 주고자 언제나 밖으로 나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요한 3,1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의 위격과 활동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요한 4,34; 6,38; 8,12-30; 히브 10,5-10 참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의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의 영과 함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어 전 세계 민족들에게 선교하도록 보내십니다.

“선교, 곧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그저 하나의 계획도, 의지로 노력해서 실현해야 할 지향도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밖으로 나가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선교사가 된다는 것. 잔니 발렌테와의 대담」 [Senza di Lui non possiamo fare nulla: Essere missionari oggi nel mondo. Una conversazione con Gianni Valente], 바티칸 출판사-성 바오로 출판사, 2019, 16-17면). 하느님께서 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고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 안에 한 가족이며 형제자매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가 지닌 인간 존엄은, 세례성사와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당신 자녀가 되어 영원히 당신 마음에 드는 이들이 되라는 하느님 초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선물인 생명 자체에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라는 초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세례 받은 이들 안에서 혼인이나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의 응답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탄생하고 사랑으로 자라나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로마 8,31-39 참조). 하느님께서 악과 심지어 죄의 도전에도 더욱 큰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마태 5,38-48; 루카 22,33-34 참조). 파스카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는 상처받은 우리 인간을 치유하고 온 우주에 흘러넘칩니다. 세상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보편 성사인 교회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를 모든 곳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증언과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며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사회와 문화를 어루만져 변모시켜 주십니다.

선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유롭고 의식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이러한 부르심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문해 봅시다. 우리 삶에 성령의 현존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선교 부르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혼인한 부부나 축성된 사람들이나 성품 직무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각자의 생활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 안에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언제나 어느 곳으로 파견되어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건설함으로써 성령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루카 1,38 참조)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참조)라고 하느님께 응답하려면, 이처럼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역사의 삶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 감염증 확산의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 사명의 도전 과제입니다. 질병, 고통, 두려움, 고립은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가난한 이들, 버려진 이들, 일자리와 수입을 잃어버린 이들, 노숙자와 식량이 부족한 이들은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맺는 공동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신과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대신, 우리가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존엄과 자유를 필요로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더욱더 활짝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성찬 전례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느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느님의 이 질문은 너그럽고 확신에 찬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하느님께서서는 세상과 민족들에게 파견하실 수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서는 기대하십니다(마태 9,35-38; 루카 10,1-12 참조).

또한 **전교 주일 거행은, 기도, 묵상, 여러분의 물질적 봉헌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요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랑은 10월 셋째 주일 전례 거행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으로 표현되며, 교황청 전교기구가 교황 명의로 수행하는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 세계 민족들과 교회들의 영적 물질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복음화의 별이시고 근심하는 이의 위안이시며, 당신 아들 예수님의 선교 제자이시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소서.



교황, “코로나19 백신, 인류 보편적 유산”

독식하려는 국가에 경고, “건강은 공동선에 속하기 때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은 세계 모든 사람의 것이므로 백신 개발 연구소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탐욕스럽게 비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코로나19 백신은 백신을 개발한 연구소가 속한 국가나 백신 개발을 위해 연합한 국가들만의 자산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10월 7일 발행된 스페인어판 잡지 ‘나의 교황’(Mio Papa)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티칸 뉴스’는 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했다. 교황은 “백신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유산”이라면서 “코로나19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들의 건강은 공동 유산이며 공동선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개신교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어떤 삶의 방식을 남겨주느냐는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가 일할 터전을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신문>

✠ 2020 SACRAMENT OF CONFIRMATION ✠

Congratulations to our parish students who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on October 13, 2020.



2020 Confirmands

NAME (CONFIRMATION NAME)

- Danielle Kim (Maria)
- David Kim (David)
- Justin Song (Joseph)
- Andrew Kwak (St. Paul the Apostle)
- Rachel Lee (Catherine)
- Matthew Han (Matthew)
- Wujin Philip Cho (St. Augustine of Hippo)
- Jinseo Daniel Kim (Daniel)
- Jihun Lee (John Maria)
- William Choi (Francis)
- Jaime Kwon (Rosemary)
- Daniel Kim (Daniel)
- Eugene Seok (Joseph)
- Judy Hwang (Veronica)
- Chris Moon (Gabriel)
- Ethan Yoon (Francis)
- Hannah Bang (Agnes)
- Joon Shik Kim (Michael)
- Yoon Shik Kim (Timothy)
- Chloe Lee (Maris Stella)

1 주임신부님 송별미사

-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께서 원주교구의 인사 발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동안 주님의 목자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송별미사

10월 25일(일) 오전 10시

2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3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4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목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

-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금 금액을 알려드리니 체크에 적을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1937)
- LAST DATE : 10/31/2020
- Refund Amount(2.55X4 weeks) : **\$10.20**
- 이메일 : ctimesusa@gmail.com
- 전화번호 : 323-351-7788

이번 주는 **전교주일**이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미사중에 세계 선교지역 교회를 위한 **2차 봉헌**이 있습니다.

8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9 2021년도 매일미사 책 주문

- 금액 : 1년분 \$65
- 문의 : 성물부 회장 **조로사** (703) 608-7191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9주 주간: 에제 13-18, 1요한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0월 11일(연중 제28주일)

주일헌금	\$2,005.34
교무금	\$7,40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550.00
합계	\$12,995.34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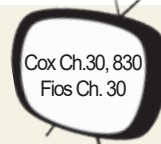
10월 21일(수) 오전 6:15-6:45 | 10월 24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성서특강 “수컷, 갈대바다”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성 정보으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22일(목) 오후 5:00-6:00
10월 23일(금) 저녁 8:00-9:00
10월 25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평화방송 주최 심포지엄 펜데믹과 교회(4) - **‘종합토론’**
- 걸어서 만나는 신앙